



‘예술과 메리티지 와인의 만남’
아티스트 시리즈 2014
 Artist Series 2014

지역	미국 > 워싱턴 주 > 콜롬비아 밸리
포도품종	까베르네 소비뇽 72% 메를로 20% 말백 5% 까베르네 프랑 3%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잘 익은 검은류의 과일향이 묵직한 부케를 형성하며 부드러운 질감의 탄닌이 달콤한 피니쉬로 이어진다.



제품설명



샤토 생 미셀 아티스트 시리즈는 와인 메이킹의 예술적인 면을 아티스트의 작품과 매칭하여 표현한 메리티지 와인이다. 1993 빈티지를 첫 출시로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한 2014 빈티지는 추상화의 거장 잔나 워스톤(Janna Waston)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출시됐다. 잔나 워스톤의 작품은 올해 레이블 작품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힘찬 붓 터치와 대담한 컬러와의 조합을 통하여 인간의 복잡미묘한 감정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티스트 시리즈는 잔나 워스톤 뿐만 아니라 Alden Mason, Richard Marquis, Ginny Ruffner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거장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 왔으며, 최고의 빈티지 해만 출시되는 보르도 블렌딩 스타일의 프리미엄 와인이다. 스페셜 레이블에 더불어 미국 ‘메리티지 블렌드’ 규정 아래 생산되고 빈티지별 25,000병이 넘지 않아 희소성을 갖춘 한정 와인이다.

수상내역



2015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4점
 2015빈티지 로버트 파커 Robert Parker 91점
 2015빈티지 와인 스펙테이터 Wine Spectator 90점

와이너리



1934년에 설립된 샤토 생 미셀은 미국 와인의 기준을 세운 최초의 워싱턴 프리미엄 와인 브랜드이다. 1967년부터 유럽 전통 포도 품종으로 다채로운 스타일의 워싱턴 와인을 선보였으며, 현재 워싱턴 지역의 AVA 등급 체계의 기반이 된 혁신적인 와이너리로 유명하다. 샤토 생 미셀은 콜롬비아 밸리 AVA 지역 내 총 1,416ha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워싱턴 주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콜드 크릭 빈야드를 포함하고 있어 와인에서 노련미와 숙성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유럽 와인 명가들의 협작을 통해 (콜 솔라레-이탈리아 안티노리, 에로이카-독일 닥터 루겐, 테네트-프랑스 가시에르) 워싱턴 주 와인 생산지의 위상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신대륙 와인의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였다. 샤토 생 미셀은 총 다섯 가지의 레인지를 통해 콜롬비아 밸리가 가진 다양한 매력의 와인들을 선보이고 있다. 신대륙과 구대륙의 조화를 담아낸 ‘콜롬비아 밸리’. 풍부한 과실미가 두드러지는 ‘인디언 웰스’. 콜롬비아 밸리만의 고유한 테루아 특성을 여실히 나타낸 콜드 크릭과 카누 리지의 ‘싱글 빈야드’ 레인지. 워싱턴이 추구하는 구대륙 스타일의 베스트 빈티지 와인인 ‘에토스’. 마지막으로 보르도 스타일의 블렌딩 와인 ‘메리티지 시리즈’로 완성되는 샤토 생 미셀의 포트폴리오는 미국의 “베스트 벨류(Best Value)” 와인으로 유명하다. 샤토 생 미셀은 단조로웠던 캘리포니아 위주의 미국 와인에서 벗어나 미국 와인 산업에 새로운 척도를 마련한 워싱턴 1위 와이너리이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